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생 16학번 김민수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이 다소 두서없이 진행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속 : 동국제강 인천공장 제강팀
- 학점 : 4.07 (전공학점 : 4.15)
- 어학성적 : 토익스피킹 (150)
- 자격증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기타 : 해외 어학연수 6개월 (캐나다)  
강지현 교수님 학부 연구생  
Y또!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 (멘토)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사업 (한국장학재단)  
각종 철강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은 시간이 되는 한 모두 참여  
(채용설명회, 기업탐방, 철강업계 설명회 등)
- 더불어 저는 '주니어 사원 제도'라는 저희 회사만의 독특한 채용 방법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주니어 사원 제도 : 4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9~12월 동안 학업과 주 1회 업무 병행과 다음 해 1월 정규직 자동 채용) 이렇듯,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 중이니 자신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 많이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1. 남들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취업에 정답은 없다)

-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충고가 주변에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도 많았지만, 각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충고, 정보들은 오히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러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 예를 들면, 영어 성적은 '토익이 좋다더라', '요즘은 토스만 본다더라', '토익 성적 필요 없다더라' 등과 같이 비록 하나의 예이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접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이야기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의견이므로 제목과 같이 저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 각자가 많이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은 남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남들은 뭐를 준비하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산업군, 직무 정하자.

- 먼저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원하는 산업군, 기업 및 직무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산업군과 기업 등을 먼저 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는 결정이 중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 과정이 완료된다면 자신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더욱 명확해지고 동기부여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정은 3번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교내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여러 미디어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많은 산업군과 기업들에 대해 듣고 경험하며 자신이 그 산업군 또는 기업에 속해 일한다는 가정을 해보시고 그것이 좋을 것 같다면 그 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3. 교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영남대학교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내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영대 소식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어울림이라는 교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선배와의 만남, 기업 채용설명회, 취업 상담, 모의 면접 등이 있으니 수시로 해당 사이트들을 들어가는 것을 습관화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러한 교내프로그램들은 자신이 찾아보는 만큼 보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하고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한 번씩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4. 학점은 고고익선 (하지만 학점이 전부는 X)

- 학점은 사실 산업군과 기업 등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점이 몇 점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학점은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 4년 동안 만들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기업에 보여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혹시 아직 학점 만회의 기회가 남으신 분들은 다른 스펙, 경험들 또한 중요하지만, 학점부터 올리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 저 또한 1학년 당시 많이 낮았던 학점을 2, 3, 4학년 동안 많은 재이수와 노력으로 극복했던 경험이 있기에 혹여나 자신이 낮은 학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기업에 어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학점에 먼저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5. 자신이 해당 산업군(기업)에 관심 있다는 증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스펙을 쌓자.

- 보통 학점, 어학성적 이외에 스펙(경험)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가 취업 준비를 하는 누구에게나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답은 여러 미디어, 취업 선배, 교수님 등 다양한 루트로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언들 또한 의미가 있으니 귀담아들으시되, 본인이 해당 산업군(기업)에 속해 직장생활을 하고자 하는 관심을 표현하는 증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스펙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에서 해당 산업군으로 진심으로 오고 싶어 하는 지원자만큼 매력적인 지원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엄청난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철강업계를 준비하며 철강업계에 진심으로 다니고 싶다는 마음을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고, 채용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잘 어필됐다고 생각합니다.

### 6. 자소서 및 면접 준비 최대한 꼼꼼하게 하자.

- 저의 경우에는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어울림에서 진행하는 교내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교내에도 충분히 훌륭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들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면접의 경우, 저는 예상 질문을 자료조사와 모의 면접을 통해 최대한 많이 준비한 다음 하나하나 모든 답변을 만들어 보며 답변에 대한 첨삭을 받으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제가 면접에서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질문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하였던 경험은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자기소개서 또한, 미리미리 많이 써보시고 최대한 많은 횟수로 첨삭을 받으시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수첩에서 수백 번 읽는다는 생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각자가 이루고자 목표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010-6670-3020** 또는 **rlaalstn0130@naver.com** 으로 연락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